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정책과 미즈호 금융그룹의 적용사례

개발금융포커스

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지원 현황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정책과 미즈호 금융그룹의 적용사례 1

개발금융포커스

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지원 현황 4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7



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정책과 미즈호 금융그룹의 적용사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재경 (jaekyeong23@kdb.co.kr)

- ◆ 일본 정부는 '21.5월 '전환금융 기본지침'과 후속 지침을 통해 전환금융의 기본조건을 수립하였고,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판단
- ◆ 미즈호 금융그룹은 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환금융 지원
- ◆ 일본은 별도의 택소노미 없이 기업이 제출한 전환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구축

□ 일본 정부는 '21.5월 공표한 '전환금융* 기본지침' 외 후속 지침을 통해 전환금융의 기본조건을 수립하였고,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환금융 제공

* 탈탄소화 사회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

○ 일본은 '전환금융 기본지침'에 의거, ICMA 핸드북*에서 제시한 전환금융의 4대 핵심요소**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

* 국제자본시장협회(ICMA)에서 '20.9월 채권 발행기관이 기후전환전략 이행을 목적으로 자금조달시 실행방안과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준비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마련한 핸드북

** ①기후전환 전략 및 거버넌스, ②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적 중요성, ③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전환 전략, ④이행 투명성

- 개별 금융기관은 전환금융 기본지침과 후속 지침에 따라 전환금융 적격성을 1차적으로 판단하며, 최종으로 일본 정부에서 적격 여부를 확정

【 일본 전환금융 정책 동향 】

구분	주요 내용
전환금융 기본지침 (21.5월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환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탄소섹터에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청·경제산업성·환경성이 공동 공표 ▶ ICMA 핸드북과 자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전환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전환금융 사후관리지침 (23.6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금지원 이후 기업의 전환전략의 이행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자금공급자의 사후관리 기본방향을 정리 ▶ 전환금융에 대한 전략·목표·대상사업의 진척 상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
GX추진전략 (23.7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^주, '33년까지 20조 엔 규모 GX경제전환채권 발행 계획, 탄소가격제 도입('26년 도입, '33년 유상할당) 등을 제시
전환채권 프레임워크 (23.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GX경제전환채권 발행을 위한 전환채권 프레임워크 개발 ▶ 조달 재원은 에너지 효율성, 재생에너지, 저탄소·탈탄소 에너지, 청정교통, 순환경제,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등에 활용될 방침

주 : 에너지 효율 대응(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원, 단열창 개보수 등), 재생에너지 확대, 원자력 활용 확대, 수소·암모니아 연료 도입, 탄소재활용 산업의 실용화 및 저비용화를 위한 지원책 추진 등

자료 : 일본경제산업성, 우리금융연구소

□ 일본의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인 미즈호 금융그룹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환금융 지원

- 미즈호 금융그룹은 대상 기업의 전환리스크 대응 의지 및 전략 수립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, 미이행시 금융거래를 중단
 - '22.12월에는 자체적인 지원체계인 '전환지원 프레임워크'를 개발하였고, '23.12월에는 그린 프로젝트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

【 미즈호 금융그룹 전환지원 프레임워크 】

전환전략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인 가능한 고객에 대한 지원		그린 프로젝트로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(재생에너지 등)	
항목	주요 내용	항목	주요 내용
① 전환전략과 필요요소	▶ 전환전략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할 것	① 자금 사용처	▶ 자금이 그린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
② 지배구조	▶ 전환전략 및 목표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 보유	②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절차	▶ 환경목표 및 프로젝트 적격성(eligibility) 평가 프로세스 보유
③ 과학기반 목표	▶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목표설정	③ 자금사용관리	▶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
④ 공시여부	▶ 전략과 목표의 투명한 정보공개	④ 보고	▶ 자금 사용처 및 배분의 투명성 확보
⑤ 대상 탈탄소 기술의 전망	▶ 탈탄소 기술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전망 보유	⑤ 전환리스크 관리정책	▶ 전환리스크 대응 및 사업구조 변혁 의지 여부

자료 : Mizuho Financial Group(2023), "Sustainability Initiatives"

- 대표 사례로 '23.11.30일 가와사키 중공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0억 엔 규모의 전환채권(만기5년)을 구조화금융으로 발행
 -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환금융 적격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며, 동 사례를 전환금융 기본지침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선정

【 가와사키 중공업의 전환의 4대 요소 충족여부 】

구분	내용
① 기후전략 및 거버넌스	▶ (기후전략) '30년까지 일본내 그룹사의 Scope 1,2 탄소중립 실현, '50년까지 그룹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 - '50년까지 그룹 전체의 Scope 3 탄소중립 또한 목표로 하며 '40년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서 탄소제로 솔루션 라인업을 완비할 계획 ▶ (거버넌스)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위원회 설립
② 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적 중요성	▶ '20년 'Group Vision 2030' 대응 차원에서 중대 사안을 재검토하고 다음의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재정의함 :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①원격 연결 사회, ②근미래 모빌리티, ③에너지 및 환경 솔루션
③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전환 전략	▶ 'Group Vision 2030'의 목표('30년까지 일본 내 그룹사 넷제로)를 달성하기 위해, 2021 회계연도 기준 그룹 전체(해외 포함)의 배출량을 연평균 7.6% 감축해야 하며, 이는 1.5°C 시나리오 기준의 과학기반 목표 인증 수준에 부합함
④ 이행 투명성	▶ '20~'30년 중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총 3,5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, 이 중 500억 엔은 100MW 규모 수소 발전사업에 투입 예정

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(2025)

- 일본은 별도의 탄소노미 없이 기업이 제출한 전환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
 - 탄소 고배출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은 탄소노미 도입보다는 기업이 제시한 전환 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금융 지원
 - 탄소노미 적용시 열거된 활동만이 금융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(활동기준), 그 외 배제기준*, 보호기준** 등도 5년 내에 충족해야 하므로,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 - * 경제활동이 특정 환경 목표에 기여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(Do No Significant Harm Rule)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
 - ** 환경목표 달성 이외에도 인권, 노동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
 - 이러한 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체계는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환금융 지원이 가능한 점이 장점
 - 그러나 기업의 전환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이 산업의 특수성이나 기술개발 동향에 크게 좌우되어,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린워싱*의 위험성 상존
 - *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을 위해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

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지원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
김 준 성 (kimjs@kdb.co.kr)

- ◆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의 기후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'30년까지 중저소득국 앞 지원금액은 '23년 보다 60% 확대될 전망
- ◆ 그러나 5년전 대비 중저소득국 앞 적응(adaptation) 관련 금융 지원 비중이 소폭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 앞 지원을 확대할 필요

□ 주요 다자개발은행(MDB)*이 '23년 여러 국가들**에 지원한 기후금융 총액은 1,250억 달러로 '19년(616억 달러) 대비 2배 규모

* 글로벌 개발금융기관 10곳 : WBG, EIB, EBRD, CEB, ADB, IDBG, AfDB, IsDB, AIIB, NDB

** 1인당 GNI 13,845달러 초과는 고소득국, 그 이하는 중저소득국으로 분류

- (중저소득국) 총 1,250억 달러 중 60%(747억 달러)는 중저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, 지역별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(172억 달러), 남미(136억 달러), 남아시아(129억 달러), 아시아태평양(109억 달러) 순
 - 기후완화 관련 지원 비중은 67%였으며(500억 달러), 에너지(27%), 교통(18%), 건물 관련(12%) 산업 순으로 지원
 - 기후적응 관련 지원 비중은 33%였으며(247억 달러), 에너지, 교통시설 및 인프라 개선(26%), 물·위생 시스템(14%), 농업·식량 관련(8%) 산업 순으로 지원
 - 지원 형태는 대출 63%(469억 달러), 정책지원 14%, 보조금 지원 7%순이며, 적응자금의 보조금 지원 비중이 11%로 완화자금(5%) 대비 높은 편
- (고소득국) 지원금액중 40%(503억 달러)는 고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, 92%인 462억 달러가 EU국가에 지원
 - 기후변화 완화 관련 지원 비중이 94%(473억 달러)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에너지(30%), 교통(30%), 건물 관련(25%) 산업을 주력으로 지원
 - 지원 형태는 대다수(81%, 406억 달러)가 대출이었으며, 크레딧라인 10%, 보증 5% 순으로 보조금 지원(0.17억 달러)은 미미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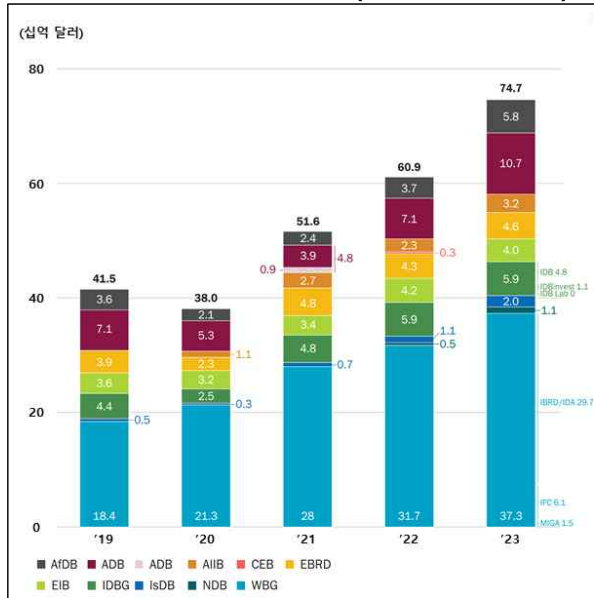
□ 기후금융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다자개발기관간 가입국 소득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

- 기후금융 지원 규모는 유럽투자은행(EIB) 37%, 세계은행그룹(WBG) 32%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외 아시아개발은행(ADB) 9%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6% 순
- EIB, WBG 두 기관의 지원액은 '19년 405억 달러에서 '23년 86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원 비중이 66%에서 69%로 증가
- EBRD, ADB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미주개발은행(IDBG) 등은 동 기간 지원 규모가 증가(20 → 30억 달러)하였으나 규모 및 증가율 모두 상기 기관보다 열위
- 이슬람개발은행(IsDB)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,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, 신개발은행(NDB)* 등은 기후금융 규모가 미미한 수준

* BRICS 5개국의 출자로 '14년 설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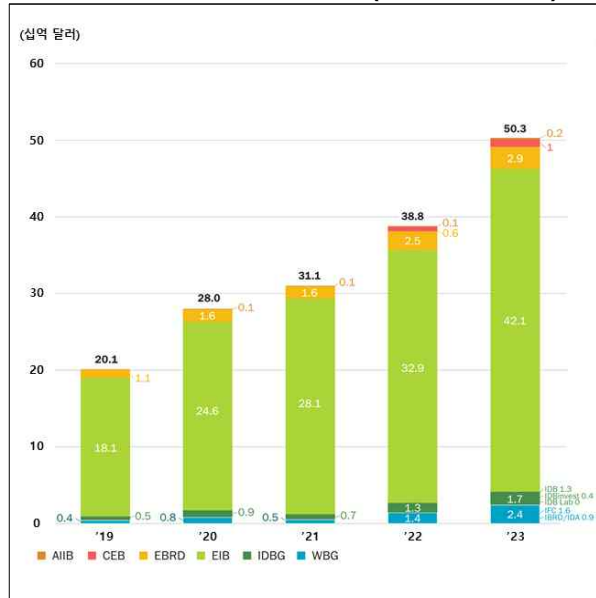
- 유럽지역 개발기관(EIB, EBRD, CEB)은 고소득국 지원 비중이 높으며, 나머지 기관들은 중저소득국 지원 비중이 대다수

MDB 기후금융 지원 현황(중저소득국 대상)



자료 : EIB, "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MDB 기후금융 지원 현황(고소득국 대상)



자료 : EIB, "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□ 사업 목적별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78%(973억 달러), 적응에 22%(277억 달러) 지원 하였으며, 완화 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

- 완화사업 지원금액 973억 달러 중 51%는 중저소득국에 배정되었으며, 이는 고소득국 비중과 비슷
- 적응사업 지원금액 277억 달러의 대부분(89%, 247억 달러)은 중저소득국 앞 배정
 - '23년 중저소득국 앞 적응자금은 '19년 139억 달러 대비 77.6% 증가하였으나, 동 기간 고소득국 앞 완화자금 증가율(147.6%) 대비 열위

주요 MDB의 사업별 기후금융 지원 현황

(단위 : 십억 달러)

구분	중저소득국		고소득국		계	
	'19년	'23년	'19년	'23년	'19년	'23년
완화자금	27.5	50.0	19.1	47.3	46.6	97.3
적응자금	13.9	24.7	1.1	3.0	15.0	27.7
합계	41.4	74.7	20.2	50.3	61.6	125.0

자료 : EIB, "2019 & 2023 Joint Report on MDBs' Climate Finance"

□ 주요 MDB는 '30년까지 중저소득국에 1,200억 달러 지원할 예정이며, 이 중 420억 달러를 적응 관련 사업에 지원할 계획('24년 COP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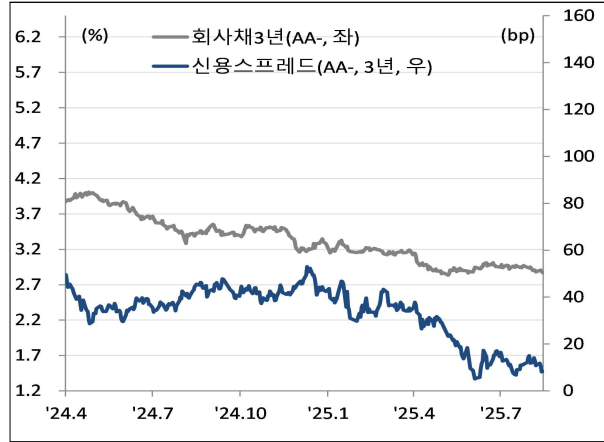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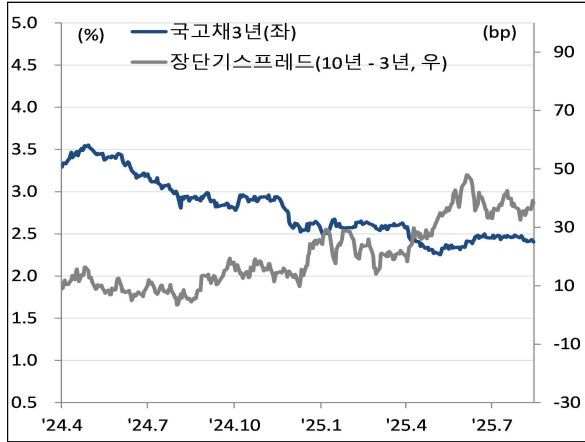
- 이 계획은 '23년 중저소득국 앞 기후금융 지원금액 747억 달러 대비 60% 증가한 수치
 - 특히 개발도상국 앞 적응자금은 '23년 지원규모(247억 달러) 대비 70%를 확대할 계획

□ 시사점

- 주요 MDB의 기후금융 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중저소득국 대 고소득국 비중은 6:4 수준을 유지중
 - 중저소득국 앞 기후금융 지원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유럽 지역의 고소득국 앞 지원도 확대
-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 앞 적응자금에 보다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
- 한국은 증가하는 기후금융 지원 사업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MDB와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리 국고채3년 2.404% (7.4bp ↓), 신용스프레드 8.3bp (3.5bp ↓)



환율 원/달러 1,390.0원 (4.8원 ↑), 엔/달러 147.25엔 (0.14엔 ↑)



주가 코스피 3,210.8pt (2.00% ↑), 코스닥지수 811.5pt (3.50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75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
문의 02-787-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